

ACE 12 :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갈라디아서 1 :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갈라디아서 1 : 5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신경 강해의 열두 번째 순서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의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큰 관심사인 정치 이야기나, 듣기 좋은 윤리적인 강연을 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큰 전략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도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사역을 하신 것도 죄 때문이며,
인간이 영원한 심판의 늪 속으로 가라 앉는 것도 죄 때문인데, 죄라는 말 자체를 없애 버린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최악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등대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알며, 경계하며, 죄를 청소하고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매일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사함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됩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용서의 기쁨이 넘쳐 납니다. 축복의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선

1. 선과 악은 무엇인가?
2. 죄의 성질
3. 불신자에서 신자로 회심할 때 일어 나는 죄용서, 즉 칭의에 대하여
4. 신자가 되고 난 후 여전히 짓는 죄의 용서에 대해
5.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6. 죄용서를 받고 난 후 오는 기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선(Good)과 악(Evil)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역사이래 사람들은 선악의 기원에 대하여,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냐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은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당신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10 :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마 19:16)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역대상 16 : 3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하는 선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 :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고양하는 것은 선이며,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악입니다.

요한일서 3 : 12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악은 생명을 해치는 기근과 질병, 기아와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악 중에서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악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 옵니다.

로마서 6 :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독교는 선악의 이원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싸움의 선봉에서 부활로서 사망을 극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세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1.1 죄의 정의(Definition)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죄는 행동뿐만 아니라, 영혼의 내면의 상태와 습관도 죄입니다. Sin is "any want of conformity unto or transgression of

the law of God" (1 John 3:4¹), **in the inward state and habit of the soul(롬 8:6)**, as well as in the outward conduct of the life, whether by omission or commission (Rom. 8:8).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사용한 죄의 원어의 의미를 고찰함으로 죄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1.1.1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transgression)이다.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용어 중 가장 많이 보는 단어 중의 하나가 transgression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계를 넘다, 월선하다’ 의 뜻을 가진 Greek 말 ‘**parabasis**’ 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넘어 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 :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1 John 3:4 (KJV)

Whosoever committeth sin transgresseth also the law: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죄는 불법이라”

우리 말은 의미가 분명치 못한데, 이 말은,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율법을 넘어가는 것이 죄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transgression of the law 의 transgression 이파라바시스입니다. ‘율법을 넘어가는것’ 이런 의미가 됩니다.

파라바시스란 글자 그대로는 건너 간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건너 갈 권리가 없는 선을 건너 가는 것, 금지된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리고 허가된 경계를 넘어 가는 월선(越線)을 의미한다.

로마서 4 :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니라

15 Because the law worketh wrath: for where no law is, there is no transgression.

transgression. :죄란 말은 인데 죄인은 parabates 이다(롬 2:23, 4:15, 갈

3:19, 히 2:2,

약 2:9).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니라**’ 에서 ‘**범함도 없다**’ 이것이 transgression, 파라바시스입니다.

로마서 4:15 절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대한 transgress 가 없었다는 말이지, 죄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transgression 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 :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¹. ⁴ Whosoever committeth sin transgresseth also the law: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Wherefore then serveth the law?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s, till the seed should come to whom the promise was made; and it was ordained by angels in the hand of a mediator.

그래서 죄란 율법을 넘어 가는 것, 파라바시스를 의미합니다.

1.1.2 죄는 과녁이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죄를 의미하는 중요한 말에 hamartia 가 있는데, 이 말은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과녁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간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 :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And she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1.1.3 죄를 나타내는 말 중에 paraptoma(=offence)가 있습니다.

이 말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아 비고의적으로 야기된 죄를 의미합니다. 로 5:15-20 에서 아담의 범죄를 의미할 때 바울이 이 말과 hamartia 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로마서 5 :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로마서 5 :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Romans 5:15-16 (KJV)

But not as the offence(=paraptoma), so also is the free gift. For if through the offence of one many be dead, much more the grace of God, and the gift by grace, which is by one man, Jesus Christ, hath abounded unto many. [16] And not as it was by one that sinned(=hamartia), so is the gift: for the judgment was by one to condemnation, but the free gift is of many offences unto justification.

1.2 죄책과 오염 : 죄에는 떨 수 없는 두 요소가 언제나 따라온다.

1.2.1 죄책 : Guilt(Reatus)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따라오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책으로서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 : 23 죄(hamartia)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책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2.1.1 Actual Guilt (벌치적 죄책): 우리가 통상 말하는 죄책으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 대신 형벌을 받으므로 죄책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책으로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벌치적 죄책을 의미합니다.

1.2.1.2 Potential Guilt(책치적 죄책) : 이것은 죄를 범한 각 개인에게 붙어 있는 것으로, 속죄에 의해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칭의 후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 일평생 마음을 아파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오는 양심의 가책인 마음의 아픔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이것마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의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은 동물이거나 양심에 화인을 맞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 : 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과수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죄의식(the Guilty Conscienceness)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the Forgiven Sinner)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속죄로 형벌에서 면제되었다’ 이것이 바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조차 없도록 지워 버리지 않으시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이십니다(culpability of sin).

1.2.2 오염(Corruption)

죄를 졌다는 것은 그 한 가지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 피할 수 없이 내면의 부패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오염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됨으로 인해 영혼이 완전히 타락하여, 그 영이 죽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선(Spiritual Good)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냉장고에 있었던 내용물이 Power 가 단절됨으로 인해, 그 내용물이 다 부패하여 전혀 못쓰게 되어 버리게 된 것과 같습니다. Power 가 다시 들어오면 썩은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내용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길,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in the spirit of mind)으로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골 3:9, 엡 4:22-24).

1.2.2 오염의 Two Aspect.

1.2.2.1 완전 타락(Total Depravity) : 영적 죽음으로 인해,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죄로 더럽혀진 것을 완전 타락이라 하고,

로마서 7 :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7 :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마가복음 7 :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마가복음 7 :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2.2.2 전적 무능(Total Inability) :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7 : 18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의 행동에 대한 도덕성은 그 사람의 내면의 도덕성에 의해 결정(C. Hodge)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은 모두 죽은 일(Dead Work)이 됩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악한 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상실되어, 죽은 일만 한다는 뜻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버섯이 나옵니다. 버섯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시민적 선(Civil Good)은 행하지만 영적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하는 선행과 봉사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선 죽은 나무가 산나무가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시급히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해방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선과 악, 특별히 죄가 무엇이나 하는 것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2. 죄의 성질(The Substance of sin)

2.1 죄는 왕노릇한다.

죄는 인간 밖에 있는 외적인 힘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죄는 인간 안에 거처를 정하고 있으며 인간을 점령한다(롬 7:20, 23). 죄는 단순한 영향력이나 힘이 아니고 인간을 침범하고 인간 안에 거하는 일종의 인격적인 마력이다. 실로 여기에 바울의 몸과 육신에 관한 모든 개념이 들어 있다. 침략군에게는 교두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침략군에게 교두보를 제공하는 것이 육(sarx 사르크스, body가 아님)이다. sarx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을 가르키는 말이다. 이 sarx에 죄는 인간을 점령할 교두보를 확보한다.

우상 숭배, 분냄, 증오, 이단은 모두 육신의 죄들이다.

. 죄는 생명의 왕이 아니고 사망의 왕이기 때문에, 사망을 도구로 하여 왕노릇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로마서 5 :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지만 아니라 죄는 죄를 증진시키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죄는 질병처럼 조그마한 발판만 마련하여도 생 전체에 번집니다. 그 결과로 죄는 죽음을 가져 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가져 온다(약 1:15)는 말과 같습니다. 죄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도덕적인 죽음, 아름다운 것들의 죽음, 사회적인 죽음, 교회적인 죽음, 모든 죽음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죄는 저주받아야 할 생명의 파괴자입니다.

2.2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율법을 사용하여 권세를 행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고린도전서 15 : 55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 :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dunamis)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이 악한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죄는 율법을 사용하여, 죄의 정욕을 일으키고, 죄인을 참소하고, 사망으로 정죄합니다.

2.3 죄의 하수인은 우리의 옛사람이다.

죄는 율법을 사용하여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자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7 :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신령한데, 왜 율법으로 인하여 옛사람이 죄아래 팔리게 됩니까?

그 이유는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정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의 정욕이 불길 같이 일어나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더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7 : 8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러 분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로마서 7 :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 :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로마서 7 : 9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와 같이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죄의 정욕을 일으켜 우리의 옛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이런 고백은 바울에게만 있는 독특한 고백이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교인들을 보라 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그런 번민이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온 이유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3 : 27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 :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3.1 내속에 거하는 죄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들어와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거하는 죄를 육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아담은 후손에게 육을 물려 주었습니다. 이 육이 인간 각 사람 안에서 인격화 한 것을 옛사람-Old Person-이라 하며, 이 인격의 속성이 육(flesh, sarx, eg. soma(=body))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은 선하나, 육으로 인하여,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육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7 :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For I know that in me (that is, in my flesh(sarx),) dwelleth no good thing: for to will is present with me; but how to perform that which is good I find not.

로마서 7 :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 : 20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태까지는 죄와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가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두 방면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죄책의 제거와 오염의 해소입니다. 하나님은 죄책의 제거에 대해 예수님의 피를, 오염의 해소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예비하셨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오염의 제거인 성화에 대해서는 기본신학 강좌 성화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죄책의 제거만을 공부하겠습니다.

4. 불신자에서 신자가 될 때 일어나는 죄용서, 즉 칭의에 대하여,

불신자는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중생하여 영이 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 :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나의 과거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미래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피흘리심이 ‘나를 죄를 사하기 위하여’ 라고 믿을 때 얻는 칭의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말하길,

로마서 4 : 23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4 :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4 : 25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영원히 기록이 고정되어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것을 칭의(Justification)라고 합니다. 칭의는 영생 부여의 조건입니다.

칭의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 중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양자의 영, 롬 8:15)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원히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영원히 기록이 고정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한번 되는 것입니다, 여러번 칭의되지 않습니다.

칭의되는 것을 법적 연합이라 하고, 중생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생명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연합에 대해서는 71 am 의 나는 참포도 나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칭의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안진다는 것일까요?

죄사함을 받아 칭의되었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5. 신자가 되고 난 후 짓는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칭의되어 기록이 영원히 고정된다는 말은, 죄를 다시는 안짓는다는 것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이 그 마음 속에서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연합의 관계는 여전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속적으로 질 때 생명의 연합 관계는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죄로 인해 교제가 단절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교통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 봐도 불꺼진 창처럼 깜깜합니다.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 먼 곳에 계신 것 같습니다. 위급하여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심각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하는 영적 고아의 상태로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고, 믿음에 다시 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1 :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6.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30 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려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양심에서 빨간 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이 때 얼른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정욕으로 인하여, 빨간 불인데도 계속 달리면, 다음에 다가 오는 것이 성령님의 탄식과 근심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계실 때는 심령이 쿵쿵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긴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 표시입니다. 이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계속 죄를 범하면, 심령에 죄의 딱지가 얹게 되어 나중에는 떼어내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금식하고 눈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경고, 말씀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 어떤 범죄는 하나님이 치시매 질병이 드는 일도 있으며, 더 이상 범죄치 못하도록 데려가시는 일도 발생합니다.

7. 죄용서를 받고 난 후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 납니다. 마음의 슬픔은 기독교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항상 슬픈 성자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죄사함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 납니다.

마음에 넘치는 기쁨은 우리의 왕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은 왕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깃발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시 30 편에서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오는 기쁨을

시편 30 : 11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 납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솟아 오르는 기쁨의 샘물을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 :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 :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 :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죄사함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솟아 오르는 영원한 기쁨의 샘물을 위해서 것입니다.

세상 기쁨이 주는 모조된 기쁨이 아닌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